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 風水的 實景山水畫에 대하여 -

朴 銀 順*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讀書堂契會圖의 구성 |
| II. 賜暇讀書制와 東湖讀書堂 | 2) 風水思想 |
| III. 讀書堂契會圖의 제작 경위 | V. 讀書堂契會圖의 화풍과 後代의 실경산수화 |
| IV. 讀書堂契會圖의 구성과 風水思想 | VI. 맺음말 |

I. 머리말

지난 30여년간 韓國美術史는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先學들의 선구적인 연구를 토대로 회화사 분야 또한 그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視覺과 方法論, 資料를 제시함으로써 의미깊은 轉機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한국회화를 보는 거시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를 깊이 천착할 수 있게 되었다.

회화사 중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대표적인 분야로 實景山水畫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적인 화풍으로 높이 평가되는 朝鮮 後期의 眞景山水畫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조선 初, 中期의 實景山水畫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그 결과 한국 實景山水畫의 근원과 성격, 화풍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金剛山圖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실경산수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후 필자는 실경산수화를 좀더 근원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조선 후기 이전의 실경산수화를 정리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16세기에 제작된 세 점의 讀書堂契會圖를 통하여 조선 초기 실경산수화의 제작동기와 구성원리 및 표현기법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하는데, 이 중 두 작품은 이미

* 스토니 부록 소재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이 논문은 양영희의 연구기금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東湖契會圖>와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의 조사와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울산 김씨 집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安輝濬教授에 의하여 소개된 것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세 점의 讀書堂契會圖들은 東湖라고 불리었던 한강변의 두모포에 설치된 東湖讀書堂과 그 주변의 자연경관을 담은 實景山水畫들이다. 이 작품들은 왕의 특명으로 讀書賜暇를 받아 讀書堂에서 연수한 선후배 문인들이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는데, 참가 문인들의 성명과 관직 등 座目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제작동기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전해지는 작품이 희소하여 연구하기 어려운 朝鮮 初期 實景山水畫의 성격과 화풍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朝鮮 後期 眞景山水畫를 이해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賜暇讀書制와 東湖讀書堂

賜暇讀書制는 1426년(세종8) 世宗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된 인재양성책이었다. 독서당에서 연수한 인원은 1426년부터 1773년까지 350년 동안 총 48차에 걸쳐 320인이 선발되었고, 가장 많았을 때는 12인, 가장 적었을 때는 1인 등 평균적으로 6인 정도를 뽑았다. 문신들은 일, 숙직으로 교대하며 독서하였고 대제학이 날마다 製述을 맡겨 매월 세 차례씩 등급을 매겼다. 세조가 집현전을 혁파한 1456년(세조1)에서 1477년(성종8)까지 독서당도 폐지되었지만, 이후 1504년(연산10)에 폐지되었던 것을 제외하곤 규장각이 설치되기 전까지 꾸준히 운영된 제도였다.¹⁾

독서를 위한 특별한 장소로 여러 곳이 선정되었다. 1426년에 처음 실시된 때에는 자택에서 독서하였으며, 1442년(세종24) 2차 사가독서 때에는 津寬寺라는 절에서 시행되어 上寺讀書라고 하였다. 1483년(성종14)에는 용산에 있던 廢寺를 서당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때까지 독서당이란 명칭은 사용치 않았다.²⁾ 1492년(성종23)에는 南湖讀書堂을 개설하였으나 연산군때 갑자사화의 여파로 폐쇄되었다. 이후 反正으로 등극한 中宗이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기르려는 시책을 시행하여 1506년(중종 원)에 제도를 복구하였고 옛 淨業院을 서당으로 삼았다. 또한 1515년(중종 10)에 東湖의 두모포가에 있던 月松庵 西麓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517년(중종12) 윤4월에 완공된 것이 곧 東湖讀書堂 즉, 湖堂이었다. 이 호당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운영되었다.³⁾

1) 이하 독서당에 관한 내용은 『湖堂文衡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奎 9929)과 『漢城識略』서울史料叢書 第2(서울시사편찬위원회, 단기4289), 98-122쪽 ; 金庠基, 「讀書堂(湖堂)의 由來와 變遷」, 金永上 編, 『郷土 서울』 4(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58), pp.13-39 ; 李炫熙, 「朝鮮王朝 兩班官僚 時代의 讀書堂考 ; 그 圖書館的 機能과 人材登用例」, 誠信人文科學研究所 編, 『研究論文集』 4, 5(誠信女子師範大學, 1972), pp.67-88 쪽 참조.

2) “尹鉉文會堂記, 癸卯歲, 以龍山廢佛寺爲其所(未有名稱)”, 『湖堂文衡錄』, 5쪽 참조.

독서당에서 휴가를 받은 젊은 문신들은 이후 정치 또는 사상과 학문을 이끌게 되었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 독서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사가 인원은 한정되었고 규정을 엄격히 하였다. 1515년(중종10) 5월에는 처음에 16인을 선발하였으나 엄격히 재심한 결과 7인 만이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大提學은 讀書堂을 거쳐야만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독서당의 사가에 선택된다는 것은 각 문신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독서사가에 참여한 역대의 모든 인물들은 그 성명과 자호, 수위, 사가일월을 목판에 판각하여 독서당의 대청 북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⁴⁾ 세월이 흘러 일부 판각이 결실되자 『湖堂文衡錄』이란 필사본의 책으로 독서사가한 인물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독서사가를 각별하게 여긴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결속되었던 讀書賜暇를 거친 선, 후배 문신들은 때로는 계획을 가졌고, 이를 기념하는 계획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沈守慶(1516-1581)의 『遣閑雜錄』 중에는 독서당계획과 계획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독서당계획도의 제작 경위와 동기를 알 수 있다. 심수경의 기록에 의하면 독서당은 본래 대청과 남루, 남루 북편에 있는 寢房으로 이루어진 조출한 건물이었었는데, 1552년(명종7)에 林塘, 鄭維吉, 朴忠元, 尹鉉, 金貴榮, 沈守慶이 상의하여 남루의 동쪽에 堂 하나를 더 짓고, 루의 명을 文會樓라고 하였다.⁵⁾ 그로부터 30년 뒤에 堂員들이 남루 서북쪽의 못 위에 새 집을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임했던 선생들을 모시고 1587년(선조21) 8월 25일에 낙성연을 베풀었다. 이때 72세였던 沈守慶과 78세였던 知事 任說이 당시의 관원이었던 校理 柳根(39세)과 李恒福(32세), 奉敎 李好民(38세)과 함께 어울렸다. 이들은 수십편의 수창시를 짓고, 그 모임을 그림으로 그려 각각 보관하였다.⁶⁾ 이 기록과 현존 독서당계획도에 참가한 여러 文臣들의 좌목을 참조하여 본다면 독서당계획도는 계획 당시의 당원과 전임 당원들이 우의와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3) 『湖堂文衡錄』, 12, 13, 16쪽 ; 『漢城識略』, 98-122쪽 참조.

4) “舊制用板刻張卦堂大廳北壁, 具選人姓名字號壽位暨賜暇日月. 其間年久, 逸失者, 則惑闕焉. 當初板刻, 自權探起, 至尹毅中止, 意尹駱村在當時始也. 其後祭至癸未冬選吳億齡止, 自乙酉夏選以下, 未及刊焉.” 『湖堂文衡錄』(奎章閣; 奎9929), 1쪽 참조.

5) 이 즈음 독서당의 건물과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가 전해진다. 省菴 金孝元(1532-1590)이 1581년에 쓴 「東湖記事」에서 김효원은 친구들과 함께 文會堂과 南樓, 西池, 聽雨堂을 왕래하면서 노닐었다고 서술하였다. 金孝元, 『省菴先生遺稿』 卷2, 「東湖記事」(韓國文集叢刊 41,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89), 358쪽 참조.

6) 沈守慶, 『遣閑雜錄』(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위원회], 580-581쪽) 참고.

III. 讀書堂契會圖의 제작 경위

현존하는 독서당계회도로는 1531년 경에 제작된 일본 개인 소장의 작품(圖 1-1, 2)과 1545년 경에 제작된 울산 김씨 宗家 소장의 작품(圖 2-1, 2, 3), 1570년 경에 제작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작품(圖 3-1, 2)이 전해진다. 이 중 1531년 경과 1570년 경의 작품은 <讀書堂契會圖>라고 表題되었고, 1545년 경의 작품은 <東湖契會圖>라고 表題되었다. 동호는 곧 독서당이 있던 곳이고 작품에 기록된 문신들이 모두 독서당 출신이므로 <東湖契會圖> 또한 讀書堂契會圖와 동일한 계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작품 이외에 기록 상으로 네 작품이 더 확인된다.⁷⁾



圖 1-1.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 1531년 경
건본수묵 91.5×62.3cm
일본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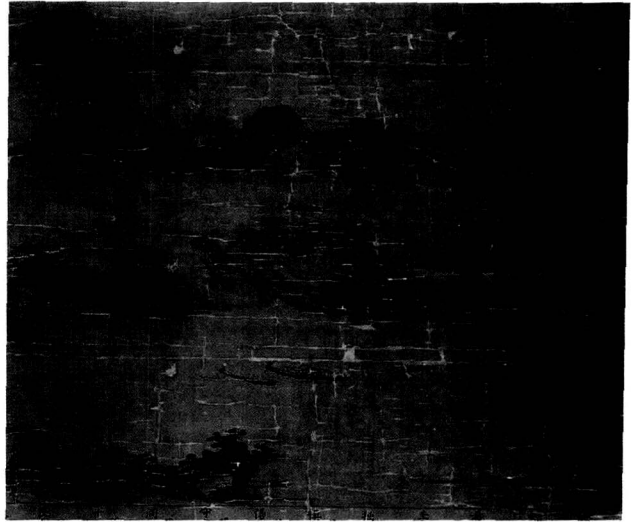


圖 1-2.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부분) 1531년 경
일본 개인 소장.

7) 필자가 확인한 것으로는 우선 1541년 경에 그려진 <東湖契會圖>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은河西 金麟厚의 『河西先生全集』 속편 외록 권1의 연보별권에 실려 있다. 寓庵 金澍(1512-1565)의 문집에 「東湖修契帖題詞」란 글이 있는데, 이 작품은 동호에서의 계회를 帖으로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金澍, 『寓庵集』 卷4, 「東湖修契帖題詞」; 龍洲 趙綱이 쓴 「東湖修契圖後跋」은 宣祖年間(1567-1607)의 중엽 후, 즉 16세기 후반 경에 있었던 계회를 그린 작품에 관한 것이다. 조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그림 부분은 없어지고 좌목 부분이 남아 있었던 듯한데, 모두 13인이 참여한 계회였다. 그 중 秋坡 宋麒壽(1507-1581)가 세 번째로 적혀 있고, 1531년 경의 <독서당계회도>에 나타나는 十省堂 嚴昕(1508-1553)의 손자인 嚴厚가 글을 썼다고 한다. 趙綱, 『龍洲遺稿』 卷12, 「東湖修契圖後跋」(韓國文集叢刊 41,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89], 202쪽); 張維(1587-1638), 「湖堂契屏風序」, 『增補文獻備考』 卷221, 讀書堂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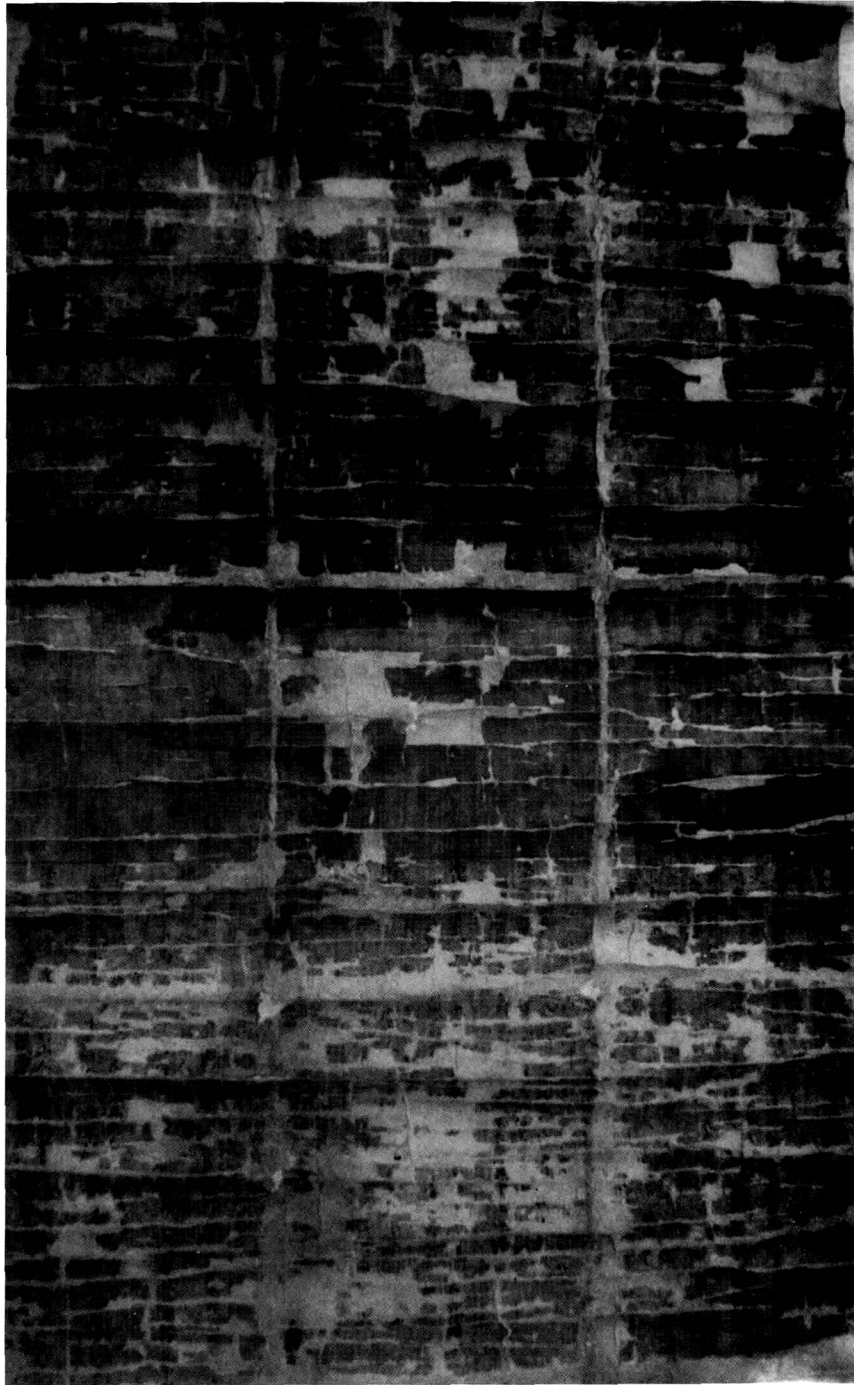


圖 2-1. 필자미상 <東湖契會圖> 1545년 경
건본담채 96.5×60cm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圖 2-2. 필자미상 〈東湖契會圖〉(부분) 1545년 경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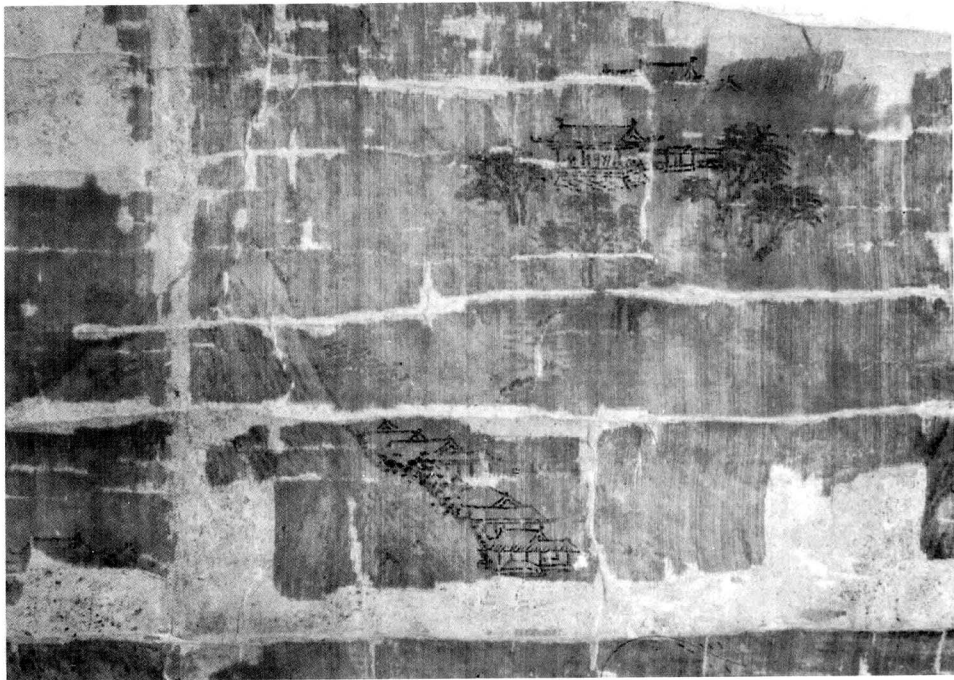


圖 2-3. 필자미상 〈東湖契會圖〉(독서당 부분)
1545년 경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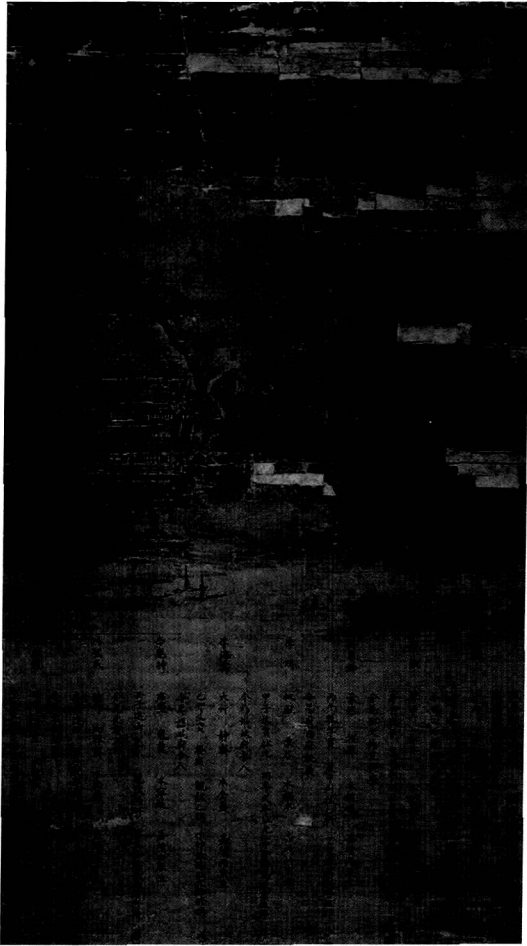


圖 3-1.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 1570년 경
 견본수목 102×57.5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 세 독서당계회도는 조선 초, 중기에 독서당계회도가 제작되는 동기와 경위, 화풍의 형성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이 중 1531년 경의 <독서당계회도>에는 1516년에서 1530년 사이에 사가독서한 文臣들의 좌목이 기록되었고, 1545년 경의 <東湖契會圖>에는 1541년에서 1544년 사이에, 1570년 경의 <독서당계회도>에는 1563년에서 1570년 사이에 사가독서한 문신들의 좌목이 관직의 서열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참고자료 1). 이 중 두 점의 <독서당계회도>는 安輝濬教授가 발굴하여 1531년 경과 1570년 경에 제작된 것을 밝혀 놓았으나,⁸⁾ <동호계회도>는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는 작품이므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東湖契會圖>(圖 2-1, 2, 3)는 현재 전라남도 장성의 울산 김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비단 바탕에 수묵과 약간의 채색을 넣어 그려진 이 작품의 크기는 96.5×60cm이며, 화면 바깥 쪽에 9cm 너비의 미색 장지를 윤곽으로 대었고 그 바깥 쪽 상단과 하단에 15cm의 쪽빛 장지를 대어 축을 이루었다. 이 작품은 현재 보존상태가 몹시 좋

지 않아서 가늘고 성글은 발의 바탕 비단은 박락된 부분이 많고 화면을 펼 때마다 부스러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또한 먹색은 매우 열어졌으며 청색을 섞은 靑墨色과 갈색조의 朱色도 많이 바래어 그려진 형태가 흐릿하게 보인다. 企齋 申光漢(1484-1555)이 유려한 초서체로 제시를 썼고,⁹⁾ 계획에 참석했던 12명의 문신들의 座目이 官階의 서열에 따라 쓰여 있다(참고자

8) 1531년 경의 <독서당계회도>에 대하여는 安輝濬, 「16世紀 朝鮮王朝의 繪畫와 短線點皴」, 『震檀學報』, 제46, 47합병호(1979.6), 217-239쪽 ; _____, 『韓國繪畫史』(一志社, 1980), 142-143쪽 ; _____, 『東洋의 名畫 : 韓國 I』(三省出版社, 1985) 참조.

9) “勝跡曾遊地, 留芳未往湖, 題名追古事, 修契入新圖, 儲養非詞賦, 張皇在典謨, 寧將恩賜暇, 只自博歡娛.”, 申光漢, 『企齋集』 卷10, 「東湖契會圖」 참조.



圖 3-2.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부분)
1570년 경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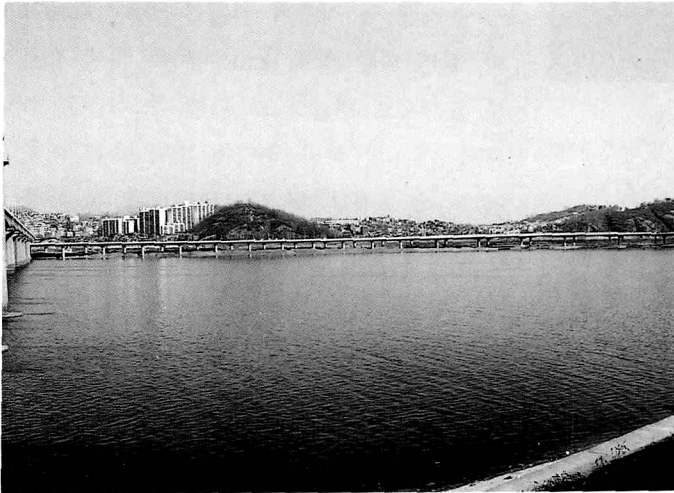


圖 4. 서울 옥수동 전경.

료 1-2). 좌목의 내용은 그 첫 줄에 호와 이름, 자, 출신지, 생년, 사가 年度를 썼고, 둘째 줄에는 과거 급제 年度와 현재의 관직이, 셋째 줄에는 아버지의 관직명과 성함이 기록되었다. 이 중 12번째로 나타나는 湛齋 金麟厚(1510-1560)의 관직명이 옥과현감으로 쓰여 있는데, 김인후가 전라도 옥과의 현감으로 재직한 것은 1543년(중종38)부터 1545년(인종1) 7월까지였다. 김인후는 1545년 5월 경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제술관으로 차출되어 옥과를 떠나 서울을 다녀왔다. 이때 조정에서는 經筵을 맡기 고자 하였으나 곧 임지인 옥과로 돌아갔고, 7월 이후에는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따라서 동호에서의 계획은 김인후가 서울에 머물러 1545년 5월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퇴계 이황(1501-1570)의 관직이 司僕寺 正으로 쓰여 있는데, 이황은 1545년에 이 관직에 임명되었고, 1547년에는 應教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545년 5월 경에 1541년과 1544년에 독서사가 하였던 문신들이 계획을 가

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6세기 전반 경 독서사가에 참가한 문신들은 『湖堂文衡錄』에 의하면 金安老(1481-1537), 蘇世讓(1486-1562), 金安國(1478-1543), 成世昌(1481-1548) 등이 선정하였는데,¹⁰⁾ 이들 중 대부분은 중종반정 이후 중앙관서에 대거 진출한 士林派였다. 16세기는 성리학을 사상과 학문으로 삼아 정진한 新進 士林들이 그들의 사상적,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시도하다가 당시에 정치와 권력을 전담하던 勳舊戚臣들과 충돌하며 여러 번의 士禍를 겪던 시기였다. 사회관 역설적으로는 士林의 세력과 영향력이 성장하였음을 반증하는 사건들이었다. 士林派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¹¹⁾ 예컨대 16세기에 강화된 郎官權 및 言官의 역할은 그 한 사례였다고 지적된다. 낭관 등 하부 관료들은 다양한 계기의 契會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였다.¹²⁾ 현존하는 계획도 중 전, 현직 司諫院 관리의 모임을 그린 1540년의 <薇垣契會圖>, 兵曹에 근무했던 전, 현직 낭관의 모임을 그린 1541년의 <夏官契會圖>, 1542년 경의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1550년 경의 <戶曹郎官契會圖>, <蓮亭契會圖(가칭)>, <六曹承政院中書堂契會圖>(不傳), <五部郎官契會圖>(不傳) 등 16세기 중엽의 여러 계획도들에 나타난 참가자들이 여러 관청의 하급 실무관료인 佐郎, 正郎 등의 신분을 가진 것이나 言官에 종사한 인물들이 많은 것도 결국 사립파들의 동향과 관계된 현상이었다고 여겨진다.¹³⁾

독서당계획도 또한 이러한 특수한 배경에서 제작된 그림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려시대 이후 문인들 간에 계획 및 계획도 제작의 관습이 정립되어 있었지만¹⁴⁾, 16세기 즈음 유난히 많이 제작된 각종 계획도와 관련된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보면 일부 계획도들은 특히 士林派 인사들의 특정한 동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가독서에 선발되었던 선후배 사립파 문인들은 독서당에서 계획을 가지며 우의와 결속을 다졌고 그들의 모임을 길이 기리기 위하여 그림으로 제작, 보전케 하였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 상술하게 되겠지만 독서당계획도의 내용과 구성이 보다 관습적인 방식이었던 관념적인 산수화로 그려지지 않고 새로운 소재와 구성원리에 따라 실경으로 표현된 것도 독서를 통하여 出世하였던 사립파 문인들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성향과 관계가 있다.

10) 註1 참조.

11) 최이돈, 「성종대 사립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 정치 모색」, 『韓國文化』 17(1996.6), 126-131쪽 참조.

12) 崔異敦, 「中宗朝 士林의 郎官 政治力 強化과정」, 『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研究』(一潮閣, 1994), 130-172쪽 참조.

13) 이 중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와 <戶曹郎官契會圖>는 安輝濬, 『韓國繪畫史』, 105쪽의 도 39와 112쪽의 도 46 ; <六曹承政院中書堂契會圖>와 <五部郎官契會圖>는 申光漢, 『企齋集』 8卷, 「題六曹承政院中書堂契會圖」, 20쪽 ; 앞 책, 5卷, 「五部郎官契會圖」, 18쪽 ; 사립파의 동향에 대하여는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一潮閣, 1987), 80-116쪽 참조.

14)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古文化』 20집(1982.6), 3-13쪽 ; _____,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畫의 傳統』(文藝出版社, 1988), 368-392쪽 참조.

IV. 讀書堂契會圖의 구성과 風水思想

1) 讀書堂契會圖의 구성

현존하는 독서당계회도들은 당대의 계회도에서 유행한 삼단형식을 따르고 있다. 화면의 상단에는 篆書體로 제목을 쓰고, 중단에는 계회 장면을 그리며, 하단에 참석자의 좌목을 기록하였다. 그 화풍은 대체적으로 당대에 유행한 安堅派 畫風을 수용하였으나 좀더 세분화시켜 보면 경물과 구성, 표현기법이 동시대의 안견과 산수화나 다른 종류의 계회도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독서당계회도가 실재하는 경치를 표현한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유래되었다.

동호에 있었던 독서당은 1517년(중종5년)에 豆毛浦의 月松庵 근처에 세워졌다. 한강의 본류와 중랑천이 합치는 곳으로 속어로 두못개라고 불리던 豆毛浦는 압구정으로 길손을 건네주는 나루터였고, 그 동쪽으로 두모포와 楮子島 사이에 동빙고가 있었다. 이 두모포 앞의 한강을 東湖라고 하였다. 탁 트인 한강변으로 경치가 뛰어난 두모포 일대에는 유명한 정자들이 있었는데, 齊安大君의 정자인 流霞亭, 연산군 때 두모포의 서쪽 언덕에 지어진 皇華亭, 선조 때에 지어진 夢賚亭 등이 유명했다. 옛 독서당 자리는 현재 鷹峰(매봉산)과 독서당 고개 아래의 옥수동 지역에 있었다고 하며(圖 4), 좀더 구체적으로는 終南山 彌陀寺와 유하정의 동쪽, 황화정의 서쪽, 몽뢰정의 북쪽에 자리잡은 조대비 생가터, 지금의 先聖廟碑와 府君堂터 남동쪽 아래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현존하는 세 점의 독서당계회도들은 40여 년의 격차 때문인지 각 작품마다 소재와 경물의 선택 및 구성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안견과 산수화의 한 종류로서 “대청구도계”로 분류되는 이 작품들은 16세기 중엽 경 한국 산수화의 양식적 특징을 대변하는 작품들로 간주되고 있다.¹⁶⁾ 1531년 경과 1545년 경의 작품(圖 1, 2)은 산수의 규모가 크고 공간이 광활한 大觀的인 구도를 취하였고, 연운의 효과를 강조하여 詩的인 韻致와 悠遠한 인상을 중시하였으나, 1570년 경의 작품은 대상의 규모와 공간을 축소시켜 화면에 꽉 채우고 묘사적인 표현을 추구하여 경관을 직접 대면하는 듯한 사실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 작품 모두 경물의 선정과 구성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 앞선 두 작품들(圖 1, 2)에서 화면의 중심부분에는 가장 주요한 대상인 독서당이 표현되었고, 그 뒤로 主山이, 그 앞으로 한강이, 가장 근경에 작은 언덕배기들이

15) 金善禹, 『讀書堂의 由來와 그 位置에 관한 考證』(漢陽大學校 教育大學院, 1988), 35~41쪽 참조.

16) 安輝濬, 『韓國繪畫史』, 142-143쪽 참조.



圖 5. 傅安堅 〈初夏〉四時八景圖 화첩 중 15세기
지본담채 각 35.2×2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6. 필자미상 〈漁村夕照〉瀟湘八景圖 병
풍 중 제2면 16세기 전반
지본수묵 각 면 91.0×47.7cm 일본
泗川子 소장.

나타난다. 독서당의 좌우로 여러 정자들이 등장하고, 강 위로는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사람들을 실어나르거나 유유자적하게 船遊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주산 뒤로는 뾰족뾰족한 윤곽형의 遠山이 표현되었다(圖 1-2, 2-2). 이 산들의 위치와 형태는 조선 초에 제작된 〈四時八景圖〉(圖 5)나 〈瀟湘八景圖〉(圖 6)에 표현된 遠山과 다르고 오히려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한양지도(圖 7)에 나타나는 서울의 祖山인 북한산 및 도봉산 등과 흡사하다. 또한 독서당의 좌우에 나타나는 높고 낮은 둔덕들은 독서당을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서당의 왼쪽 언덕들에 보이는 정자들은 이 지역의 명물로서 漢陽十景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고 조선 후기의 지도(圖 7)에까지 그려진 유하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1570년 경의 <독서당계획도>는 근경을 강조하면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묘사를 지향하고 있다. 경물의 선정과 포치는 이전의 독서당계획도나 동시대의 산수화(圖 6)와 달라

보인다.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은 여러 인물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전각, 곧 독서당 건물이며, 이 건물을 중심으로 그 뒤의 주산과 건물 앞에 흐르는 강물, 건물 옆으로 난 길과 근경의 언덕 등이 나타난다. 또한 界畵의인 기법을 토대로 한 건물의 상세한 묘사, 사실적인 모습의 소나무 등에서 실재하는 경관을 담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한양의 전모를 표현한 회화식 지도인 都城圖 중에 독서당이 그려진 것들이 있다. 이들 지도에 나타난 독서당 부분의 포치방식(圖 7의 오른쪽 아래 윤곽선 부분)은 16세기에 그려진 독서당 계획도의 구성과 일치한다. 조선시대의 지도는 풍수적인 관점에서 산수의 맥락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성도의 전체 구성과 포치는 한양의 풍수를 개념화시킨 것이었다.¹⁷⁾ 이 지도 중 독서당 부분을 떼어내어 독서당 뒤의 主山을 부각시키고, 그 위로 지도의 윗 부분에 보이는 삼각산과 도봉산, 문수봉 등을 遠山으로써 포치한다면 독서당계획도에 표현된 산수의 포치가 된다. 그러나 독서당이 있었던 근처를 찍은 현재의 사진(圖 4)에는 독서당 뒤의 주산이나, 북한산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실경산수화에서 담았던 실경이 서양의 풍경화가 포착하듯이 한정된 순간과 지점에서 한정된 시야를 담는 일점투시도법에 근거한 실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서당계획도>에 표현된 경물과 구성은 조선 중기 이후의 실경산수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방식을 연상시킨다. 즉, 이 작품들에서는 경물을 재현할 때 주된 경물을 중심으로 하되 그 주변의 山形水脈을 감안하여 시각적 사실과 풍수적 개념을 융화시켜 재현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독서당계획도의 구성은 자연의 형세와 자연에 내재된 氣가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풍수개념을 安堅派의 구도에 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2) 風水思想

讀書堂은 국가에서 설치한 일종의 官衙였지만 그 설치 동기가 문신들의 학문을 수양시키려는 것이었기에 마치 문인들의 書齋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¹⁹⁾ 後代에는 문인들의 書齋를 讀書堂이라고도 하였을 정도로 독서당이란 학문 수양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 곳은 다른 官衙와 달리 수려한 자연환경에 자리잡아 인격과 학문을 도야하기에 적합하여야 했

17) 서울의 고지도에 관하여는 李燦, 楊普景, 『서울의 옛 地圖』(서울학연구소, 1995) 참조.

18) 朴銀順, 「沙溪精舍와 沙溪精舍圖 -朝鮮 中期 實景山水畵의 一例」, 『考古美術史』 3호(1994.12); 朴銀順, 『金剛山圖연구』(一志社, 1997), 169-172쪽 참조.

19) 李炫熙, 앞 글 참조.

고, 그 장소는 風水思想에 입각하여 선택되었다.

風水思想이란 陰陽說과 五行說을 기반으로 하며, 『周易』의 체계를 중요한 논리구조로 삼아 형성된 전통적인 지리학으로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술과학이었다.²⁰⁾ 풍수사상은 한양을 수도로 채택한 원리가 된 이래 조선시대 내내 각 지역의 중심지인 도읍과 마을, 주거지, 묘를 잡는 원리로 활용되었다.²¹⁾ 풍수를 중시하는 관습은 고려왕조를 개창한 왕건이 혼요 십조에서 그 중요성을 거론하였을 정도로 오랜 전통이 되어 왔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신흥 사대부층들은 유학을 중시한 文士들이었다.²²⁾ 이들은 새로운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改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학과 풍수를 절묘하게 조화시켰고, 풍수사상은 조선 건국의 이론적 토대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유학과 풍수사상의 조화가 가능했던 것은 朱子學의 사상체계의 주요한 토대가 된 자연관이 『周易』의 논리를 배경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자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氣, 陰陽, 五行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天人合一의 우주관을 지향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풍수사상의 근거가 된 자연관과 논리적으로 상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자학을 숭상한 조선 초의 신흥 사대부층은 자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풍수사상을 무리없이 수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다.²³⁾

문인들이 좋은 산수에 깃들여 사는 이유에 대하여 五山 車天輅(1556-1615)는 「東湖別業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제 그대가 湖海에 가까이 살려는 것은 그 한가롭고, 광활하여 넓은 것 같은 것을 즐기려는데 있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것은 밖에 있으나 기르려는 것은 안에 있으니, 내가 기르려는 것이 크므로 곧 내가 보려는 것이 따라서 큰 것이다. 보는 것이 크면 곧 천지만물이 내 작은 몸 안에 둘러 쌓이게 되는 것이다. 산이 아니나 높고 물이 아니나 크니, 진실로 밖에서 구할 것이 없다. 만일 안으로 힘쓰지 않고 밖으로만 힘쓴다면 莊周가 이른 바 안팎으로 채찍질한다는데 가깝지 않을 것이다.²⁴⁾

20) “地理之術，於人吉凶禍福，最大也。而或者不究其理，反以陰陽誕誕，略不加意，誠可笑也”，『世宗實錄』卷120, 30년 4월 甲戌條 참조.

21) 이몽일, 『한국 풍수사상사 연구』(일일사, 1990), 147-149쪽 ; 崔昌祚, 「2. 우리 풍수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민음사, 1992), 57-58쪽 ; 권선정, 「풍수의 입장에서 본 취락입지」,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푸른 나무, 1993), 229쪽 ; “大抵山川，天造地設，自然之形勢，氣聚之多少在焉。其有吉凶難辨之處，則人各所見，議論不同。若大村吉地，則雖肉眼皆同。” 『世宗實錄』卷108, 27年 4月 丁未條 참조.

22) 김홍경,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한길사, 1996) 참조.

23) 이상태,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史學研究』 제39호(韓國史學會, 1987), 233-255쪽 ; 야마다 케이치, 김석근 역, 『朱子の自然學』(통나무, 1991) ; 한동환, 「우리 식의 그린벨트를 찾아서」,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223쪽 참조.

24) 車天輅, 『五山集』卷5, 「東湖別業記」(韓國文集叢刊 61,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91], 429-430쪽) 참조.

문인들이 이상적인 조건을 구비한 산수 간에 거하려 함은 그 자연을 완상하는 好事를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감응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뜻을 키우려고 한 것이다.

1476년(성종8)에 독서사가 시행되었을 때 이에 대한 그림이 제작된 것을 虛白堂 成倪 (1439-1504)의 「題賜暇讀書藏義寺圖」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성현은 독서당이 위치한 주변의 風水와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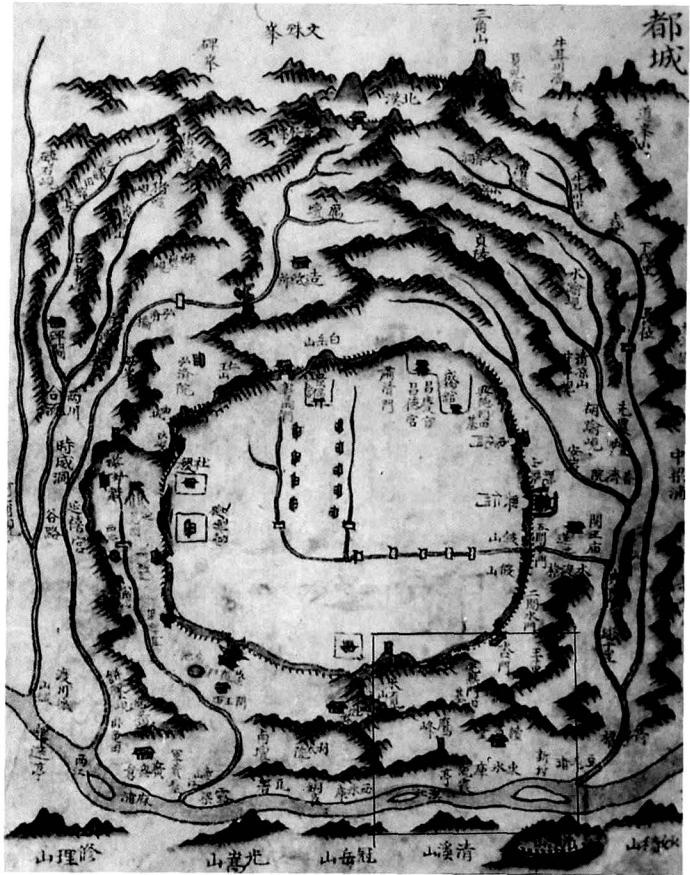


圖 7. 필자미상 <都城圖>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4.5×35cm 개인 소장.

… 藏義寺는 인왕산과 백악산의 북쪽, 삼각산의 서쪽에 있다. 말쑥하고 아주 경치가 뛰어나며, 또한 푸른 시내가 졸졸 거리며 처마와 창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 모든 산수의 맑고 시원한 기운을 절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절은 소유할 수 없으니 이제 여러 君子가 아침저녁으로 얻은 것을 한계지을 수 있겠는가. 나중에 功이 이루어져 이름이 따르면 우뚝하여 보통사람의 지표가 될 것이니, 그 근원은 다 이 절인 것이다. 涵虛子같은 이도 가서 함께하고 싶지만 늙어서 할 수 없으니, 이 사람 다시는 나아갈 수 없겠구나. 슬프도다.²⁵⁾

25) “(上既卽位, 治尙文, 一時豪傑之士, 稍稍由科目出, … 八年丙申, 上敎若曰, 有志之士, 牽於職事, 未能專業, 由是泥於致遠甚非, 予作人求助之意, 其選文臣之年少而敏, 將遠且大者若干人, 特賜暇, 詣山房讀書, … 實應其選, 乃命往藏義寺, 讀前所不假讀之書), … 寺在仁王白嶽之北, 三角山之西, 有瀟灑特絕之觀, 又有碧澗鳴絃, 逸出於軒窓之下. 凡山水冷疎爽之氣, 皆寺之有也, 寺不得有之, 而今爲諸君子其朝晝所得可涯耶. 他日功名遂, 卓然立於衆人之表, 其源蓋此寺也. 若涵虛子者, 欲往從之, 而老不可得, 此生無復有進也, 噫.”, 成倪, 『虛白堂集』 卷 3, 「題賜暇讀書藏義寺圖」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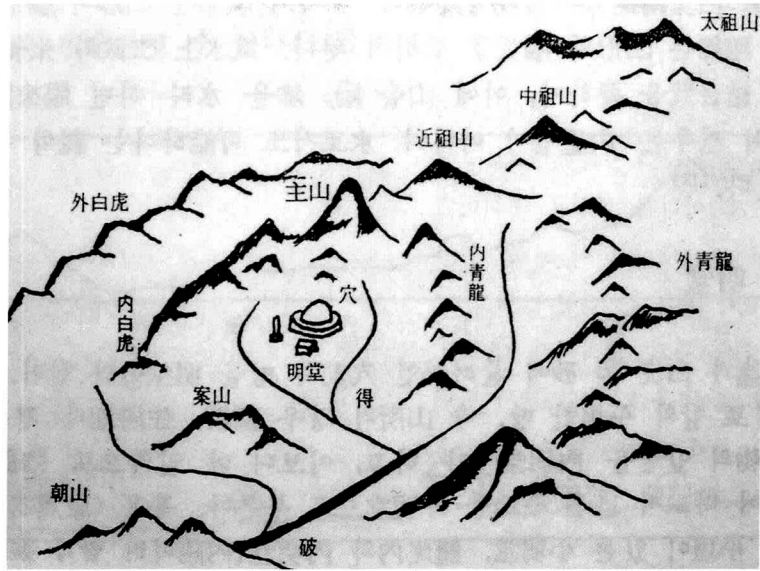


圖 8. 풍수개념도.

이 글이 화면에 표현된 경물을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장의사가 위치한 현실적인 형세를 묘사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건물이 위치한 산수의 形勢가 거기에 깃들인 사람들에게 게도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믿음은 조선 초 이래로 뿌리깊은 습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의 고을과 주거지, 무덤은 主山 혹은 鎮山을 배경으로 터를 잡고, 그 좌우로 청룡과 백호에 해당하는 保護砂가 있는 곳을 선호하였으며, 그 앞에는 案山 또는 朝山이 있는 것을 상서롭게 여겼다.²⁶⁾ 자연의 형세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풍수사상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며, 보편적으로 개념화된 풍수관을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 풍수개념도(圖 8, 9)이다. 풍수의 원리는 조선시대의 古地圖에도 반영되어 독특한 구성과 표현기법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²⁷⁾. 조선의 고지도에서는 풍수사상에 근거하여 산천래맥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圖法이 애용되었고, 지도에 표현된 지역은 이상적인 지리 여건을 갖춘 明堂으로 유형화되곤 하였다.

이와 같은 풍수관이 조선 초의 실경산수화에 수용된 과정에 대하여는 좀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 초에 <漢陽八景圖>, <楊花渡圖>, 박연폭포도, 금강산도와 같이 勝景을 그린 실경산수화와 문인들의 별장 및 서재를 그린 각종 실경화들이 제작된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참고자료 2), 현존하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아쉬운대로 조선 초의 실경

26) 崔昌祚, 앞 글, 57-58쪽 참조.

27) 고지도에 관하여는 李燦, 『韓國의 古地圖』(凡友社, 1991); 『海東地圖』(서울 大學校 奎章閣, 1995); 安輝濬, 『韓國의 古地圖와 繪畫』, 『海東地圖』, 48-59쪽 참조.

산수화에 풍수적인 구도가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다. 慕齋 金安國(1478-1543)은 <神勒結社圖>에 대한 제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그림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그림에서 절은 푸른 산 아래에 있고 수 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으며, 강줄기는 그 앞을 흘러가고 시냇가 다리 위의 스님은 저녁을 맞아 절로 돌아가고 있다. 강의 남쪽에 있는 초막은 강을 굽어보며 두 사람이 암반 위에 앉아 있다. (畫有寺在青山下, 長林掩暎. 江流橫前, 溪橋上行脚僧, 侵暮赴寺. 江南有茅構俯江, 兩人對坐巖磯.)”라고 하였다.²⁸⁾ 16세기 전반에 쓰여진 이 글에 시사된 경물의 종류와 위치는 풍수개념도(圖 9)와 유사하며, 스님에 대한 묘사는 조선 초, 중기에 풍미한 화제였던 瀟湘八景圖 중 “煙寺暮鐘”의 근경에 표현되곤 하였던 인물을 연상시킨다.



圖 9. 풍수개념도.

또한 편파구도계의 安堅派 畫風을 수용하여 실경을 그린 작품으로 조선 초기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시사하는 작품이 전해진다. <光德山浮圖庵圖>(圖 10)는 전칭작이기는 하지만 한 집안의 宗家에 유전된 유품으로 그 전래경위가 분명하고, 제작동기와 시기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귀중한 작품이므로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겠다.²⁹⁾ 이 작품은 1482년 전라남도 순창의 광덕산록에 부도암을 건축하며 시주를 주도한 薛夫人이 그렸다고 전칭되나, 그 화가의 진위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제작경위를 쓴 기록과 종이의 紙質, 화풍으로 보아 1482년 경에 부도암의 경관을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 초에 유행한 안견파 화풍을 참조하여 근, 중, 원 삼단 구성을 취하였으나, <사시팔경도>(圖 5)나 <소상팔경도>(圖 6)와 달리 近景에 초옥이나 가옥이 나타나지 않고 다

28) 金安國, 『慕齋集』 卷4, 「神勒寺尙均師持小圖一軸 … 余觀是圖宛一神勒結社圖也…」 (韓國文集叢刊20, 79-80쪽) 참조.



圖 10. 傳薛氏夫人 <光德山浮圖庵圖> (勸善文帖 중 1, 2쪽)
15세기 말 지본채색 34.5×30.8cm 申昇載 소장.

만 樹木이 우거진 경물로 표현되었다. 中景에는 초록색 단청으로 치장된 건물이 또렷하게 묘사되었고 중경의 바로 위로 遠景이 나타난다. 근경과 중경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으며, 경물의 왼쪽으로는 너른 수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경물의 포치는 순창 광덕산 주변의 뛰어난 산수를 어느 정도 재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의 제작경위를 설명한 기록은 있지만,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기록은 없으므로 화면에 표현된 전각이 반드시 부도암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의 제작경위 상 화면의 중앙에 표현되어 눈길을 끄는 이 전각이 부도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겠다. 따라서 실경을 묘사하고자 한 이 그림의 화가는 아마도 관념적인 사시팔경도류의 회화와는 다른 구성을 선택하였고, 그 색다른 구성의 이면에는 산수형세의 포치에 대한 관습적인 감각, 즉 풍수적인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심이 되는 전각의 앞에 물줄기와 작은 언덕을, 그 뒤에 산을 포치하였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이후 독서당계회도류의 회화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독서당계회도들이 관념산수화들과 다른 구성원리를 취한 것은 독서사가에 선택된 뛰어난

29) 이 작품은 필자가 오래 전부터 주목하여 조선 초기 실경산수화의 자료로서 삼고자 하였고, 1996년 5월 31일 역사학대회 미술사분과의 발표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우연히도 당시에 이성미교수가 이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세한 考證을 하여 논문으로 발표했기에 큰 도움이 된다. 李成美, 「傳薛氏夫人 <光德山浮圖庵圖>와 <花鳥圖>」, 『美術史學研究』 제209호(1996.3), 5-38쪽 참조.

문인들의 독특한 가치관 및 처세와 관계가 있다. 현존하는 독서당계회도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개 사림파였다(참고자료 1). 조선 중기의 사림들을 일컬을 때 때로는 讀書之人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士林에게 있어서 학문적인 수양과 도야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서당계회도는 혁신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조선 중기 사회를 이끌어간 新進 士林의 親自然的인 自然觀과 학문을 중시하는 성향을 담은 그림으로서 좀더 관습적이었던 다른 계회도들과 차별되는 양상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V. 讀書堂契會圖의 화풍과 後代의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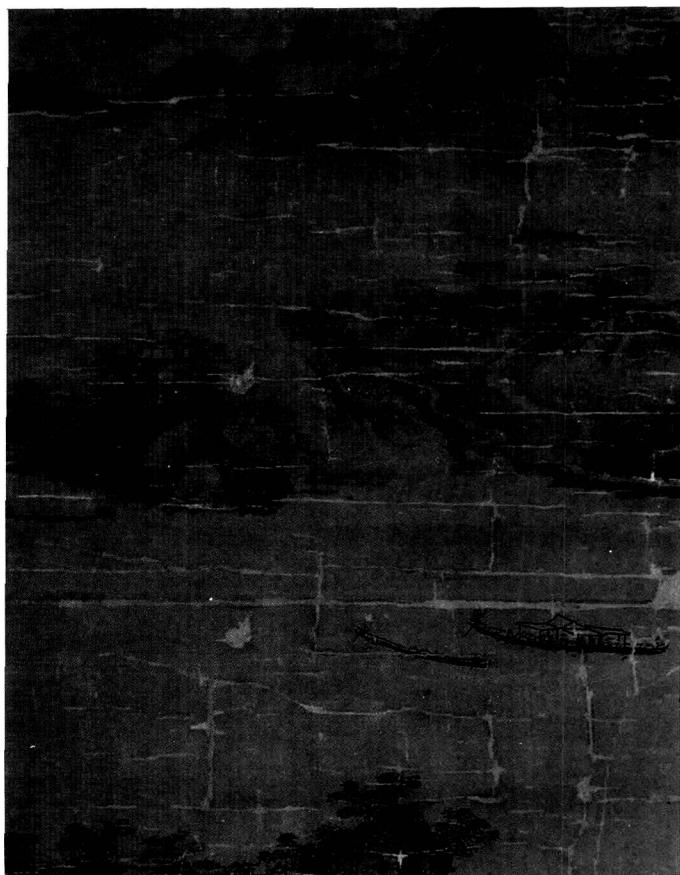


圖 11.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독서당 부분)
1531년 경 일본 개인 소장.

그림에 있어서 소재 및 경물의 선택, 화면의 포치 등 구성이 그림의 뼈대를 이룬다면, 여러 소재를 표현하는 필묵법과 준법, 수지법 등 표현기법은 작품의 전체 면모를 완성시키는 살이 된다. 독서당계회도는 대체적으로 조선 초, 중기에 풍미한 安堅派의 화풍을 수용하였으나 실제하는 자연과 경물을 다룬 實景山水畫였기 때문에 차츰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세 점의 독서당계회도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알려져 왔던 1531년 경과 1570년 경의 독서당계회도는 같은 畫題이면서도 그 구성과 공간개념, 준법 및 수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圖 12. 필자미상 <漁村夕照> (부분) 瀟湘八景圖 병풍 중
16세기 전반 지본수묵 각 면 91.0×47.7cm
일본 泗川子 소장.

點葉式的 樹枝法은 1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소상팔경도> 중의 여름 풍경(圖 12)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하나의 화면에 완성된 대칭구도와 경물의 선정 및 포치, 遠山의 형태와 표현기법 등 다른 면모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1545년 경의 <동호계회도>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1545년 경의 <동호계회도>(圖 2, 13, 14)는 대관적인 구도와 단선점준, 활엽수를 위주로 한 수지법에서 1531년 경의 작품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화면의 구성 상 경물의 비중이 커지고, 中景의 독서당 장면이 또렷하게 부각되었으며(圖 2-3), 원경이 중경에 합류하여 이단구도에 가깝게 되는 등의 변화가 발견된다(圖 2-2). 인물들은 전각안에 나타나며 개개의 경물이 비교적 또렷하게 묘사되었고(圖 2-3), 이전에는 안개 구름을 자욱하게 표현하여 서정적인 운치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545년 경의 <동호계회도>(圖 2)는 이 두 작품 간의 간격을 해명해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1531년 경의 <독서당계회도>(圖 1, 11)는 近, 中, 遠 삼단 구도와 확산적인 공간개념, 여러 경물의 종류와 형태, 구불구불한 短線點皴 등 安堅派 화풍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세 점의 독서당계회도 중 안전과 산수화풍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짧게 끊어지며 굵기가 변화하는 짙은 필선으로 울퉁불퉁한 운곽선을 표현한 근경 언덕의 형태 및 표현방식(圖 11), 시커먼 焦墨으로 표현된 뾰족뾰족한 遠山들, 짧고 직선적인 단선점준, 화창하고 따사로운 시절을 시사하는 활엽수의 모습, 작고 짙은 점을 위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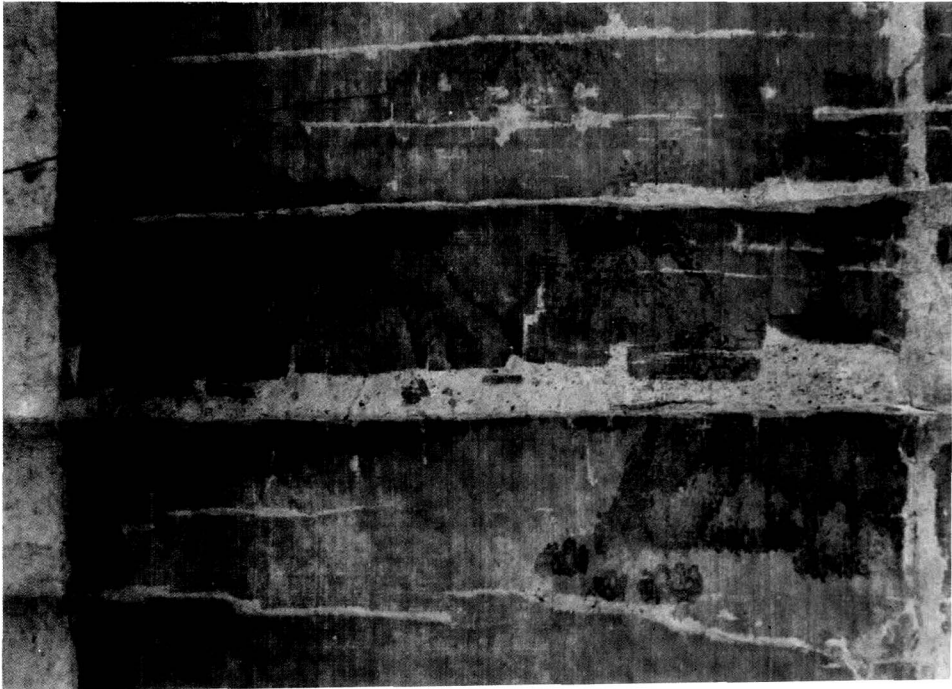


圖 13. 필자미상 <東湖契會圖> (부분) 1545년 경
 견본담채 96.5×60cm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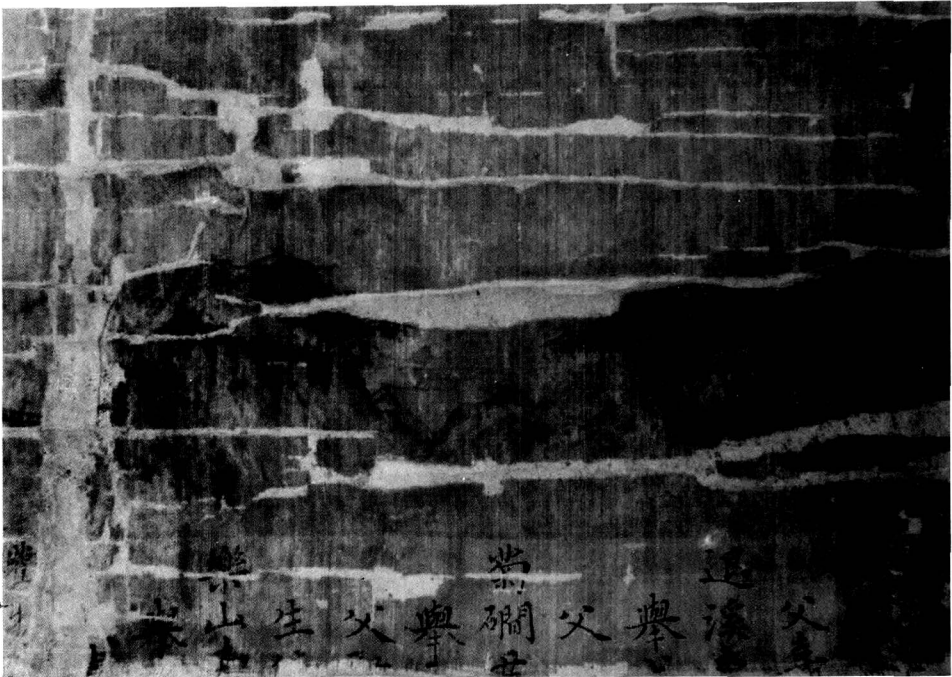


圖 14. 필자미상 <東湖契會圖> (부분) 1545년 경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분위기를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감을 표현하는데 치중하였다. 원경과 주산 등 여러 산과 언덕의 형태가 과장없이 둥글고 아담하며, 또한 부드러운 먹과 굵기의 변화가 많지 않은 선묘를 구사하여 표현적인 성향을 자제하고 사실성을 추구한 것이 느껴진다. 이러한 면모는 경물의 포치에서도 나타난다. 즉, 독서당의 바로 앞에 좌우로 나타난 작은 언덕들은 좌청룡 우백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圖 14), 독서당 뒤의 主山과 더불어 독서당을 감싸는 형국을 이루어 1531년 경의 작품에 비하여 현장감을 강조하며 풍수적인 개념이 부각되었다. 즉, 실경을 재현하는데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표현기법 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당시에 산수를 보는 기준이었던 풍수관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다른 종류의 계획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1540년의 <薇垣契會圖>, 1541년의 <夏官契會圖>(圖 15), 1542년 경의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圖 16-1, 2)는 모두 안견과 화풍을 구사한 계획도들로서 <소상팔경도>(圖 6)나 양팽손의 <산수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안견과 산수화의 특징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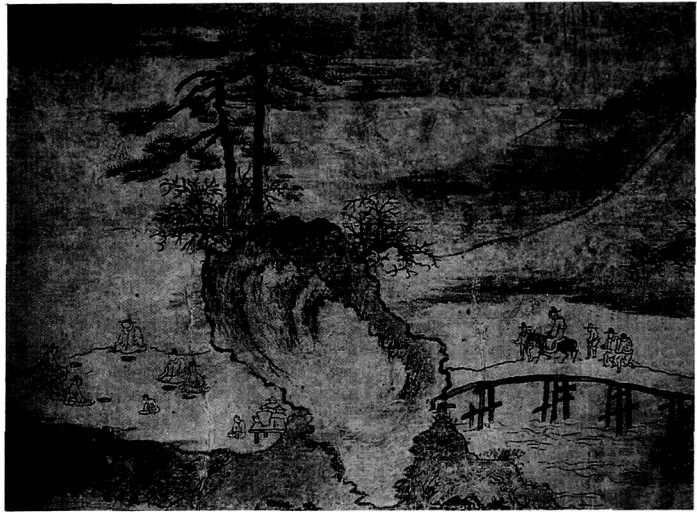


圖 15. 필자미상 <夏官契會圖>(부분) 1541년 경
건본수묵 97×59cm, 서울 이원기 소장.

하고 있다.³⁰⁾ 특히 근경의 언덕에 포치된 계획 장면(圖 15, 16-2), 언덕과 산의 형태 및 표현 기법(圖 16-1), 준법과 수지법 등은 16세기 중엽 경 안견과 화풍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그려진 계획도라 하여도 그 제작동기 및 주제에 따라 일정한 소재와 표현기법을 구사하는 습속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당계획도는 특히 문인 특유의 문화

30) 이 작품들은 모두 안휘준교수가 발굴하여 연구한 작품들로서 <미원계획도>와 <하관계회도>는 安輝潛, 『東洋의 名畫』 韓國 I (三省出版社, 1989) 도54, 55, 56 및 160-161쪽의 도판 해설;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획도>(도 16)는 安輝潛,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小考」, 『歷史學報』 제65집(1975.3.), 117-123쪽 ; 여기에 사용된 도판은 현재 울산 김씨 종가에 <동호계획도>와 함께 소장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비단본의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획도>와 동일한 화풍으로 그려졌으며, 김인후의 자필로 판단되는 題詩가 쓰여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어떠한 경위에서인가 장지 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작품이 워낙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작품으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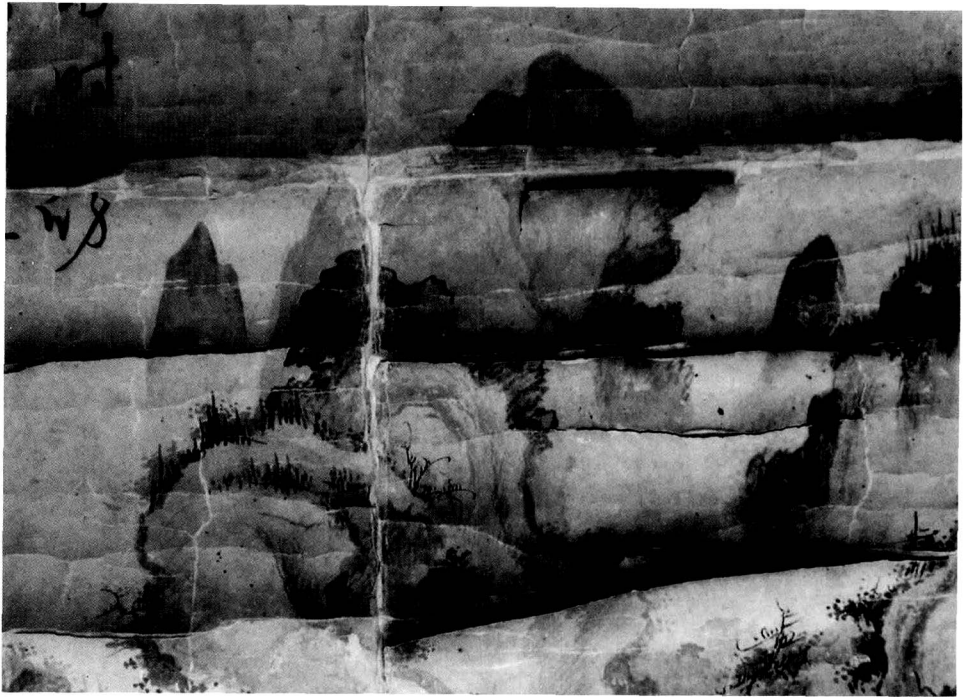


圖 16-1. 필자미상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遠山 부분) 1542년 경 지본수묵 102×61cm
전라남도 장성 울산 김씨 宗家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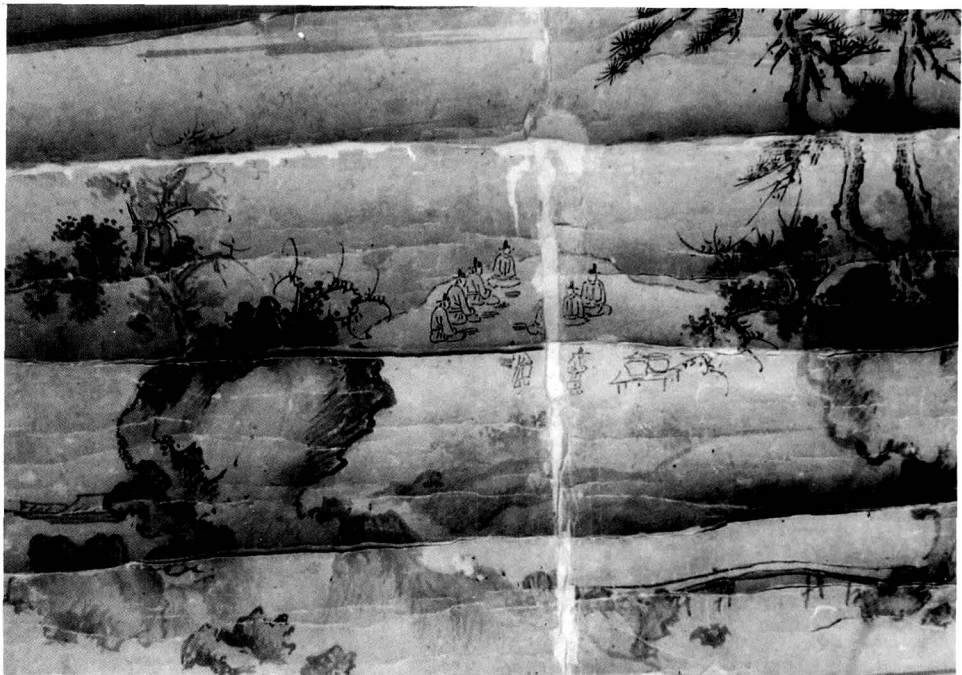


圖 16-2. 필자미상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계회 부분)
1542년 경 전라남도 울산 김씨 宗家 소장.

인 독서를 계기로 제작된 작품으로써 기왕에 존재하던 書齋圖나 別墅圖같은 실경산수화의 화풍을 토대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계획도들과 구별되는 소재와 표현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570년 경의 <독서당계획도>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화면에서 경물의 비중은 훨씬 커지고 중심되는 경물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근, 중, 원 삼단구성이 거의 부정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1550년 경의 <戶曹郎官契會圖>의 화풍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작품들은 이전의 계획도들과 달리 화면의 중앙에 경물을 집중시키면서 새로운 구도와 공간개념을 제시하였다.³¹⁾ 궁궐도나 궁중행사도에서 사용된 界畵法을 도입하여 공중에서 俯瞰하여 재현한 독서당의 전각들, 소나무와 버드나무, 활엽수의 사실적인 모습, 부드러운 먹과 윤곽선으로 표현한 主山과 골짜기들, 열은 墨調로 渲染된 면과 먹이 닿지 않은 하얀 면의 대조, 길고 느슨한 선처럼 변화한 皴法 등 새로운 기법을 구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묘사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회화사상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으로서 조선 중기에 유행한 절파계 화풍의 추구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조선 초기에 풍수적 개념을 배경으로 성립된 하나의 경향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경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독특한 면모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까지 필자는 독서당계획도의 화풍이 실경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작품들은 특정한 계획이 일어났던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재현하였다. 풍수사상에 입각한 자연관과 구성원리를 토대로 하였고, 이에 따른 표현기법을 추구하였으므로 “風水的 實景山水畵”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화풍은 조선 중기에 보편화되면서 한국적인 실경산수화 전통의 저변을 이루었다.

17세기에 제작된 실경산수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1609년 경의 <沙溪精舍圖>(圖 17-1, 2), 17세기 초 李信欽의 <斜川庄八景圖>, 傳李禎筆의 <關西名區帖>, 1664년 경 韓時覺의 <北關實景圖> 화첩, 17세기 초엽 경의 <契會圖>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필자미상의 <陶山圖帖>(圖 18)등 여러 작품들은 모두 풍수적인 구성원리를 토대로 한 구도와 공간개념, 실경 묘사를 위한 준법과 소나무를 표현한 수지법 등 실경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독특한 기법들을 사용하였다.³²⁾ 이 작품들 또한 독서당계획도와 마찬가지로 당대에 풍미한 산수화풍에서

31) 이 작품에 대하여는 安輝濬, 「16世紀中葉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畵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8호(1975.12), 36-42쪽 참조.

32) 이 중 한시각의 <북관실경도>에 대하여는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34호(1988), 107-135쪽 ; 傳 李禎의 <관서명구첩>에 대하여는 李元福, 「李禎의 두 傳稱畵帖에 대한 試考」(上), 『美術資料』 34號(1984.6), 46-59쪽 ; 이 부분에서 거론된 여러 작품들은 朴銀順, 「沙溪精舍와 沙溪精舍圖」, 앞 책의 도판 부분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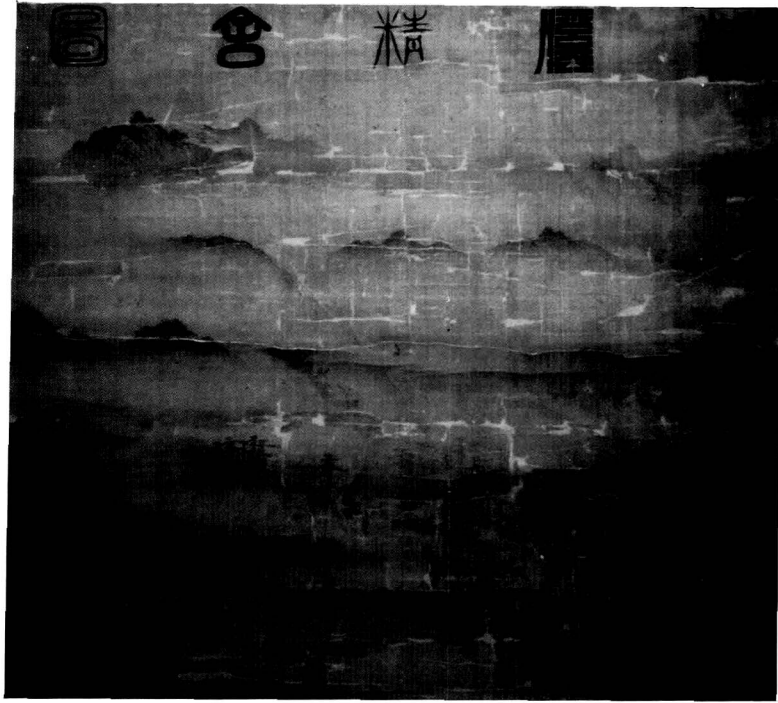


圖 17-1. 필자미상 〈沙溪精舍圖〉(부분) 1609년 건본담채
88.4×55.5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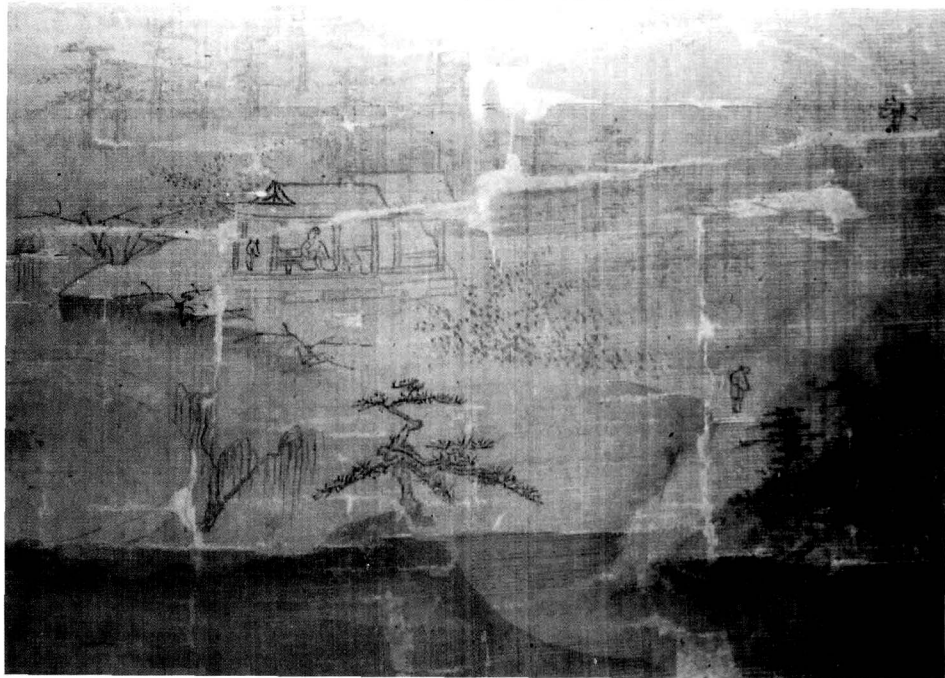


圖 17-2. 필자미상 〈沙溪精舍圖〉(부분) 160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 18. 필자미상 <陶山書院圖> (부분) 18세기 전반
지본담채 34.5×127.5cm,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유래된 표현기법을 수용하여 시대적인 미감과 정서를 반영하였다. 인간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삶의 배경으로서 자연을 표현한 실경산수화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그려진 것은 우선 자연과의 교감과 동화를 중시한 先祖들의 가치관과 자연관 때문이었지만, 또한 실경산수화의 화풍이 각 시대에 유행한 화풍을 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동시대인들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창조적인 變을 추구한 결과였다.

독서당계회도와 17세기에 제작된 여러 실경산수화들은 한국적인 자연관과 미감을 배경으로 “風水的 實景山水畫”의 유형이 정립된 것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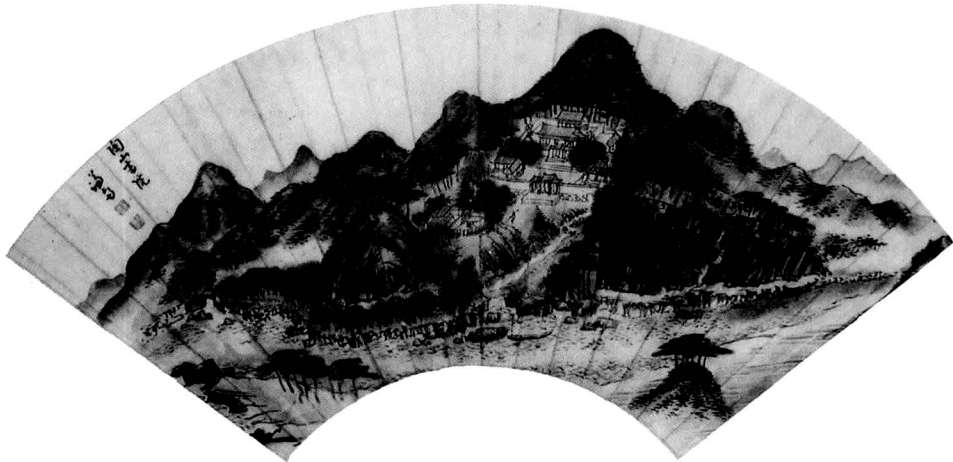


圖 19. 鄭愷 <陶山書院圖> 18세기 전반 지본담채 18.5×27.5cm, 개인 소장.

준다. 이러한 풍수적 실경산수화풍은 이후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圖 19, 20)가 형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³³⁾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풍을 정립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謙齋 鄭愷(1676-1759)은 풍수적인 산수화의 개념과 양식(圖 19)을 꾸준히 애용하였다.³⁴⁾ 정선의 畫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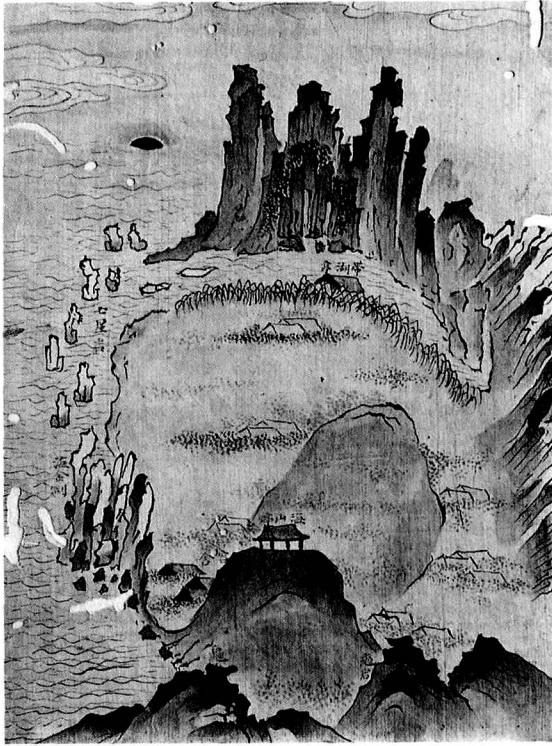


圖 20. 필자미상 <海山亭圖> 關東十景帖 중
1748년 경 지본담채 30.5×20.3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표현방식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필자는 정선이 전통적인 자연관과 화풍을 중시하였고, 특히 관습적으로 풍수를 강조해 온 한양 일대를 그릴 때에는 풍수적 실경산수화풍을 애용하는 보수적인 면모를 유지하였던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풍수관을 토대로 형성된 조선 초기의 실경산수화풍은 조선 중기의 실경산수화풍을 형성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실경산수화가 가장 중요한 畵目의 하나로 정착되며 독특한 양식을 이룩할 때에도 여전히 전통 양식으로서 존중되었다. 따라서 風水的 實景山水畵란 한국적인 자연 환경과 자연관 및 화풍을 토대로 형성된 실경산수화의 개념이며, 양식으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현존하는 세 점의 讀書堂契會圖를 중심으로 그 화풍의 연원과 특징,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 이래로 풍미한 풍수사상을 배경으로 형성된 風水的 實景山水畵의 개념 및 양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독서당계회도는 賜暇讀書라는 인재양성책을 배경으로 제작된 그림이다. 16세기에는 성리학을 사상적, 학문적 토대로 삼아 활동한 士林派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독서당계회도에 기록된 인사들의 대다수는 사림과 문인들이었다.

33) <關東十景帖>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는 朴銀順, 『金剛山圖 연구』, 211쪽과 도43, 45, 64 참조.

34) 정선의 풍수적 진경에 관하여는 朴銀順, 앞 책, 169-171쪽 참조.

이들은 다양한 집회를 통하여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계획도들이 제작되었다.

독서당계회도는 산수의 비중이 큰 實景山水畫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독서당이 국가적인 官衙 중에서도 讀書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된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즉, 독서당은 수많은 문인들이 학문을 위해 경영한 書齋와 같은 장소였고, 따라서 아마도 그 이전에 그려진 書齋圖나 문인의 별장을 그린 別墅圖처럼 처소가 위치한 산수의 形勢를 풍수개념에 따라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였던 것이다.

독서당계회도는 당대에 유행한 安堅派 畫風을 토대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념산수화가 아닌 실경산수화로서 구체적인 경물을 표현했기에 구도와 준법, 수지법 등 표현기법상 차츰 독특한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룬 세 점의 독서당계회도들은 40년 간의 격차를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화풍이 서서히 변화된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관념산수화의 화풍을 근간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가 차츰 실경산수화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풍수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여 독특한 소재와 구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大觀的인 산수화를 선호한 조선 초기의 안전과 화풍으로부터 小景的인 산수화를 선호한 조선 중기의 절파계 화풍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나라 회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장르관습, 즉 한 종류의 화제를 다룰 때 전래된 표현 방식과 화풍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예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떠한 경우이건 독서당계회도들은 경물의 선정과 구성에서 실경산수화로서 풍수적 개념과 원리를 받아들였고, 공간개념이나 短線點皴, 일부 수지법에서는 安堅派 畫風과의 관련성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대양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 시대를 대변하는 그림이 되었던 것이다.

독서당계회도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 중기에 제작된 여러 實景山水畫에도 반영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립된 풍수적 실경산수화풍은 결국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에서도 소재와 구성원리, 표현기법으로서 수용되어 한국적인 실경산수화풍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는 鄭敼이라는 특정한 천재나 소수의 개인들에 의하여 갑자기 제기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래된 자연관과 예술관, 회화 전통에 대한 再考 및 改新을 통하여 정립되었던 것이다.

** 참고자료 1

1-1. 1531년 경 <讀書堂契會圖>의 참여인물

성 명	독서사가	과거급제	사 립
1. 張玉(1493-?)	1516년	1515년	사립
2. 洪敍疇(1499-1546)	1523년	1522년	사립(?)
3. 許磁(1496-1551)	1524년	1523년	사립
4. 林百齡(?-1546)	1520년	1519년	사립→權臣
5. 宋麟壽(1487-1547)	1524년	1521년	사립
6. 宋純(1493-1583)	1520년	1519년	사립
7. 周世鵬(1495-1554)	1524년	1522년	사립
8. 李霖(?-1546)	1528년	1524년	사립
9. 許沆(?-1537)	1528년	1524년	士林→權臣
10. 申石礪(?)	1531년	?	非 사립
11. 嚴昕(1508-1553)	1531년	1528년	사립
12. 崔演(1500-1549)	1531년	1525년	?

1-2. 1545년 경 <東湖契會圖>의 참여인물

성 명	독서사가	과거급제	사 립
1. 林亨秀(1504-1547)	1541년	1535년	사립
2. 李滉(1501-1570)	1541년	1534년	사립
3. 尹鉉(1514-1578)	1541년	1537년	사립
4. 南應龍(1514-1555)	1541년	1535년	사립(?)
5. 閔箕(1504-1568)	1541년	1539년	사립
6. 李洪男(1515-?)	1541년	1538년	?
7. 金澍(1512-1563)	1541년	1539년	사립
8. 李湛(1510-1575)	1541년	1538년	사립
9. 李元祿(1514-1574)	1544년	1541년	사립
10. 朴承任(1517-1586)	1541년	1540년	사립
11. 盧守愼(1515-1590)	1544년	1543년	사립
12. 金麟厚(1510-1560)	1541년	1541년	사립

1-3. 1570년 경 <讀書堂契會圖>의 참여인물

성명	독서사가	과거급제	사림
1. 尹根壽(1537-1616)	1567년	1558년	사림
2. 鄭惟一(1533-1576)	1570년	1558년	사림
3. 鄭澈(1536-1593)	1567년	1562년	사림
4. 具鳳齡(1526-1586)	1567년	1560년	사림
5. 李珥(1536-1584)	1567년	1564년	사림
6. 李海壽(1536-1598)	1567년	1563년	?
7. 辛應時(1532-1585)	1563년	1559년	사림
8. 洪聖民(1536-1594)	1567년	1564년	사림
9. 柳成龍(1542-1607)	1570년	1566년	사림

** 위의 목록 중 물음표로 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이거나 확인되었으나 의심스러운 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 참고자료 2

“ 기록으로 전하는 조선 초기의 실경산수화 ”

1. <南原別墅圖> 徐居正(1420-1488) 『四佳集』(韓美資, 18쪽)
2. <深岳別墅圖> 金宗直(1431-1492) 『佔畢齋集』(韓美資, 18쪽)
3. <李棻仲別墅圖> 金正國(1485-1541) 『思齋集』(韓美資, 19쪽)
4. <交河山水圖> 金宗直 『佔畢齋集』(韓美資, 23쪽)
5. <楮子島圖> 姜希孟(1424-1483) 『私淑齋集』(韓美資, 22쪽)
6. <雙間亭圖> 朴遂良(1470-1552) 『三可集』(韓美資, 20쪽)
7. <花石亭圖> 金宗直 『佔畢齋集』(韓美資, 20쪽)
8. <武夷精舍圖> 徐居正 『四佳集』(韓美資, 19쪽)
9. <丘山書院圖> 咸軒(1508-?) 『七峯遺稿』(韓美資, 22쪽)
10. <玄圃圖> 柳方善(1388-1443) 『泰齋集』(韓美資, 60쪽)
11. <秋圃圖> 『續東文選』(韓美資, 49쪽)
12. <司諫院會三清洞圖> 李荇(1478-1534) 『容齋集』(韓美資, 20쪽)

** 이 자료는 문헌으로 전하는 조선 초기 실경산수화의 일부를 모은 것이며, 대개 별서도, 정자도, 서원도, 기타 실경화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외에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한양(新都)팔경도, 楊花渡圖, 평양(岐城)십경도, 금강산도, 한강도, 박연폭포도 등 勝景을 담은 실경산수화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다. “韓美資”로 표기한 것은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2)』(一志社, 1991) 의 약자임.

[ABSTRACT]

A Study on the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 at Toksödang in the Early Chosön Dynasty

Park, Eun soon

This study considers about three paintings of 16th century with the title of “the Painting of Literati Gathering at Toksödang”. Toksödang, a building for reading, was a national institute for prospective young scholars’ study in the early Chosön dynasty. These paintings were made to record special meetings by literati officials who had chosen to study at Toksödang under the king’s order. They are not only the record of historical occasions but also the reflection of the literati’s view of nature and art.

Toksödang was first established at the year of 1426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leader of the first Renaissance in Chosön dynasty. He planned to cultivate men of knowledge and talent as they were thought to be essential assets of prosperous society based on Neo Confucian ideology. A few most talented young scholar officials having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and just started their services as officials were selected to have vacation to focus on study without any burden of official duties. As the belief on Geomancy in which the circumstances of nature affected people was quiet spread in the early Chosön period, the building of Toksödang was built a very scenic spot with the most idealistic nature. The belief of Geomancy and the real setting of the building were reflected on “the Painting of Literati Gathering at Toksödang”.

These three paintings rendered around 1531, 1545, and 1570 started to be represented on the basis of Ankyön style, the most influential painting style of the day. The painting around 1531 especially resembled idealistic landscape paintings by Ankyön school in composition and techniques. But in the painting of 1545 there began to appear much differences in the pursuit of descriptive rendering of a real scene, that is, Toksödang and

its surroundings. This attitude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were strengthened in the painting of 1570. With these paintings of Toksŏdang we can assure that the tradition of real landscape paintings and the ideology of Geomancy as a basis of considering nature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Chosŏn period.

The tradition of real landscape paintings based on Geomancy was looked down upon by descendant artists. Chŏng Sŏn(1676-1759), the great master of True View Landscape Painting in the 18th century was also one of the followers. He shared the new interpretation of nature with other literati of the day and introduced many inventive stylistic features reflecting new value and taste, but still worked on the basis of the long tradition handed down to him through centuries. With these 3 paintings of Toksŏdang, we can be sure that the concept and visual accomplishment of art in Chosŏn period was quite settled down in the early stage of the dynasty, about which we have a long way to go to find out.